유망 벤처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기회 제공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과 한국컨설팅협회(KCA)가 주최하고 정보통신부가 후원한 '2004년 상반기 SW 디지털콘텐츠 투자마트'가 지난 6월 24일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투자마트에는 정보보호기술,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마크애니, 엔로그소프트, 윌로우소프트 등 유망 벤처기업들과 호서벤처투자, LG벤처투자, KTB네트워크, 한미창투 등 기관투자자들이 참석했다.

글 / 신승철 기자

지난 6월 24일 '2004 상반기 SW 디지털콘텐츠 투자마트'가 개최됐다. 이번 투자마트는 KIPA에서 추천한 사업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해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하고 기업과 투자자의 개별 접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었다. SW 및 디지털콘텐츠 벤처기업을 위해 연 2회 개최되는 투자마트는 정부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벤처기업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총 16개 유망 벤처, 기업IR 기회 가져

이번 투자마트에는 SW 및 디지털콘텐츠 개발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이고 지난해 매출실적이 1억원 이상인 기업이거나, 2001년 이후 신소프트웨어대상 또는 디지털콘텐츠대상 수상기업, 품질인증(Good Software마크) 획득기업, 혹은 이에 상당하는 객관적 평가를 얻은 기업이 참석할 수 있었다. KIPA는 참가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2단계 평가를 거쳐 총 16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침입탐지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정보보호기술은 10억원, 문서보안솔루션 개발업체인 마크애니는 30억원, 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 개발업체인 윌로우소프트는 20억원의 투자유치를 희망했고, 이들 투자유치 희망기업들은 이날 자사 제품을 전시하고 기업IR을 가졌다. 이날 투자마트에서는 건당 30억~50억원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던 LG벤처투자, 센츄리온기술투자외 1개사(건당 20억~30억원), 티지아시아벤처외 1개사(건당 10억~20억원), 호서벤처투자(건당 10억원) 등이 참석해 투자유치 희망기업들의 ▲실적과 성장성 ▲비즈니스 모델 및 진행중인 마케팅 현황/계획 ▲재무현황 ▲수익모델, 세계화 가능성 ▲성장성 ▲기술과 시장성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특히 LG벤처투자와 센츄리온기술투자는 정보보호기술에, 무한투자는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서치캐스트, 에어로네트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TG아시아벤처스는 원키즈와 1차 미팅을 완료했으며, 호서벤처투자는 윌로우소프트의 개발 및 마케팅 과정을 추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KIPA측은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자금이 골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나 기관투자자 등의 세심한 투자유치 가능성 파악을 고려하면 과다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향후 벤처캐피털을 대상으로 하는 SW 디지털콘텐츠 벤처기업 IR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나가고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